진중권의 세상보기

안철수 사냥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출마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러니, 출마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얼마 전 어느 포털 사이트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안철수 룸살롱' 사건. 한 마디로, 안철수는 TV에 출연하여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와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수준이다.

문제가 된 것은 몇 년 전 안철수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했다는 발언. 문제의 기사를 쓴 신동아 기자에 따르면 안철수가 거기서 한 번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단다. 그런데 문제의 동영상을 아무리 돌려 봐도, 거기에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는 발언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문제가 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강호동 : 단란히 마시는 술집도 가보셨어요? 안철수 : 아니오, 뭐가 단란한 거죠? 유세윤 : 단란하게. 우승민 : 노래하면서 술 마시는. 안철수 : 노래방? 유세윤 : 노래방인데 도와주시는 분들 있는. (여기서 곧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우승민 : 담배도 못 피우십니까? 안철수 : 네." 이게 전부다.

여기서 안철수는 잠시 강호동의 개그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한다. 우승민의 힌트에도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한다. "노래방?" 유세윤이 "도와주시는 분들 있는"이라고 말할 때쯤에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겠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화제는 담배로 넘어간다. 여기에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한 마디로, 기자가 주관적 '해석'을 졸지에 객관적 '사실'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기자의 언어능력이 떨어지거나, 그의 밤문화가 남다른 것일 게다. 그래놓고 이리저리 취재하러 다닌 모양이다. 과연 발품을 판 보람이 있었다. 안철수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적 있다는 사람들이 진짜로 나타났다. 이로써 안철수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다.

안철수와 룸살롱에 동석을 했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안철수 원장의 말을 들어보자. "1998년 이후 15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만, 사업상 모임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술집에 갈 때 술을 마시지 않고 동석했던 적이 두세 차례 있었다." 이게 전부란다. 하지만 질 안 좋은 기사 때문에 안철수는 술집에서 여자를 주무르는 처지가 됐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초 경찰이 안 원장에 대해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 원장이 룸살롱을 드나들며 그곳의 '새끼마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가 떠돌자, 경찰이 내사를 벌였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것. "그런 루머가 계속 제기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영 안 되더라."

당시는 '무릎팍 도사'의 출연으로 안 원장이 막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던 시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찰 못지않은 정치적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안철수의 친구'를 자처하는 금태섭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런 짓 하는 게 기자나 경찰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치인들도 버젓이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다닌단다.

안철수 원장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후보의 검증은 어차피 혹독한 법. 이제 그도 미디어가 빚어낸 이미지에서 국민들과 똑같은 땅에 사는 현실의 인간으로 내려와야 한다. 앞으로 쏟아질 검증공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재는 최초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후보의 정치 철학, 재산형성 과정, 공약의 실천 의지 등을 묻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의혹에는-설사 그것이 터무니없는 오해라도-성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반면, 공직의 수행과 관련 없는 너절한 주장들, 특히 사생활에 관한 모략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사 설

초강력 태풍 한반도 강타, 피해 최소화해야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태풍인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볼라벤은 28일 오전 초속 40m으로 서해상에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뿌려 곳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역대 사상 최대인 124명의 생명과 5조4700억 원의 재산을 앗아간 2002년의 루사나 비슷한 위력을 보였던 2003년의 매미에 버금가는 태풍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날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밤새 강풍이 불어 입간판이 날아가고 가로수와 전신주가 뿌리 채 뽑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8일 오전 9시 목포 서해상을 지나면서 초속 30~40m의 강풍과 호우를 동반해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이삭이 패인 농경지 침수와 수확기에 접어든 유실수 낙과, 가옥 침수 및 산사태 발생, 도로·하천과 방파제 유실 등의 피해 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명 피해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에 온힘을 기울였으나 볼라벤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군·관·민을 총동원하는 등 복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옥 침수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피는 물론 산사태 및 제방·방파제 유실 등의 점검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라 더 위력적인 '슈퍼 태풍'에 대비해 재난방제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대의 가장자리에 있어 기상 재앙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기 고

임성지구 호남고속철 역세권 사업 협의체 만들자

김호남

고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분권화를 꼭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이용섭 국토부 장관은 도 건설협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역세권철도 산업에 관해 필자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시골 구석까지 도로포장이 잘되어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살고 있어서 도로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면서 '21세기는 국가 산업이 철도산업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이야말로 동서 균형발전과 양분화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친환경 산업이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미래 모델이다. 최근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세권 개발과 고속철을 연계시키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완공이 결국에는 공염불이요 공약(空約)에 그쳐버리고 송정→무안을 경유하는 노선 선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예산 확보부터 새로운 판짜기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졸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은행나무도 마주보아야 열리고 손발이 맞아야 뛸 수 있는 법이다. 조정 역을 해낼 전남도도 그렇고 목포시와 무안군은 한심하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도로, 철도, 항만이 교차하는 L축의 교통망과 다도해, 문화자원이 풍부한 이곳 목포권이야말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이자 신해양산업의 거점도시라고 자부해 왔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 추진될 호남 고속철 임성지구 사업은 117년 목포 개항이래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무안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다.

현재 남악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인 임성지구 개발이 목포시만 독자 추진하는 반쪽 개발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고 어색하고 엉성하다.

선택과 시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꿈의 시간대인 고속철을 주거기능과 연계시키는 효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사업이자 민간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목포시와 무안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대역사가 삐걱대고 소통과 설득의 무대장치가 없다. 크라이슬러 아이아코카 회장은 "아무리 훌륭한 판단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다. 무안군민과의 소통부족이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중심이 되는 목포와 무안이 협력해야 하고 해당 지역민들이 손수 나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결집된 의지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무안과 목포의 상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해 왔다. 공통의 지역현안을 두고 양 지자체가 별도로 움직이기보다는 갈등이 있다면 이를 봉합하고 화해해서 양자 이득을 위한 개발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군 지도자들의 참된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상공인들이 박수를 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 굳게 믿는다. 역사는 만들어 가는 자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구의원 동네 민원에 '선심 재정' 투입이라니

극심한 재정난에도 광주시 각 자치구가 의원 거주 아파트 경비실을 수리해주는 등 선심성 예산집행을 일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들 사업 공사비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자치구는 올해 구별로 4억~10억원대 예산을 편성해 구의원들의 요구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예산서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풀 경비' 등 갖가지 명칭을 붙여 사업비를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달에만 5건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비가림 시설,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했다. 김모 의원이 거주하는 일곡동 현대 1차 아파트의 경우 1970만 원을 투입, 지하주차장 비 가림 시설을 해주는 등 편법으로 예산 집행을 했다.

남구도 주월동 명지생활체육시설(1004만원), 봉선동 라인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1476만원) 등을 주민건의 사업 명목으로 집행했다. 서구도 치평동 한국아파트 경비실 보수(500만원), 풍암동 한신아파트 놀이시설(1500만원) 설치 등 특혜성 사업이 부지기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들 공사금액이 모두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자치구가 부담토록 한 것은 금액의 다소를 떠나 의원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사업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법은 엄연히 목적이 불분명한 편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청은 지방재정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의원들 역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요구, 건전재정운용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23〉

호주의 과학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박행순

내가 카트만두 한글학교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담당하면서부터 과학창의재단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과학타임스(The Science Times)를 꼼꼼히 읽었다. 3월 14일자에 박소현 기자가 쓴 호주의 온라인 과학교육 행사인 "나도 과학자,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호주 국립교육과정위원회에서 과학이 실험실과 과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 특히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소개했다. 교사들 편에서는 학생들의 과학과목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과학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도입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본 행사의 이름인 동시에 표어로 내건 "I am scientist, get me out of here!"는 "나는 과학자예요. 나를 이 공간에서 꺼내주세요."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다. 자기들을 연구실이라는 공간에 가두어두지 말고 꺼내서 사회와 소통하게 하라는 과학자들의 호소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호주에서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에 본격적으로 2주간씩 2회 진행한다. 학생들은 평소 과학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질문들을 온라인상에서 묻고, 과학자들은 24 시간 안에 답을 하며 채팅을 통한 대화시간도 갖는다.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심사자가 되어 몇 차례의 투표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과학자를 뽑는다. 선정된 과학자에게 과학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주 1천 달러가 상금으로 주어진다고 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과학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도입하여 선발한다. 나는 그간 여러 차례 우리나라와 중국 조선족, 몽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축제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이 행사에 꽤 흥미를 느꼈다. 네팔에 있는 내가 자격자인지 여부를 문의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신청을 했다. 파탄의대 교수 신분으로 연구 분야는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소개하였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난 8월 1일, 높은 경쟁에도 불구하고 8~9월의 행사에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일반 분야, 질병과 생물기관 분야에 각각 다섯 명의 과학자가 배정되었으며 나는 질병 쪽을 맡게 되었다. 서른세 학교에서 5~12학년까지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다. 나는 해당 사이트에 내 프로필을 올리고 연습 채팅에도 참여하였다.

내가 학생들의 질문에 좋은 답을 할 수 있을지, 채팅은 순발력 있게 오갈 수 있을지, 내 영어로 충분히 소통 가능할지, 투표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를 몇 라운드까지 남겨 둘지 등은 별로 염려되지 않았다. 내가 이 행사를 통하여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아주 많다. 앞으로 실생활에 과학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된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다니 한글학교 과학교사인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호주 학생들의 관심사와 창의력을 가늠해보고 다른 과학자들과도 인맥을 쌓는 기회가 된다. 나의 참여가 학생들에게 토의능력과 비판적 사고, 과학수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한다니 보람도 느낀다.

프로필에 만일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묻는 항이 있다. 나는 내년에 네팔 청소년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 과학캠프를 열고 싶은데 이때 경비에 보태 쓰겠다고 적었다. '한·네 청소년 과학캠프'가 열릴 때, 이 프로젝트가 힘을 보태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의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이 행사를 즐길 작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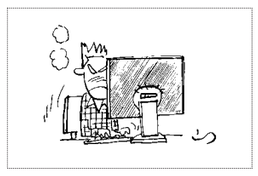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無等鼓

'히키코모리'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은 30대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의정부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30대가 공업용 칼로 8명을 다치게 했다.

두 사건 용의자의 공통점은 '외톨이'라는 점이다. 여의도 사건의 범인은 해고된 뒤 고시원에서 남과 어울리지 못한 채 궁핍하게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전 직장 동료가 자신을 따돌려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다고 여겨 '복수의 칼'을 갈아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의정부 사건 용의자 역시 지난 10년간 가족을 포함한 타인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일 등 일용직으로 지내왔다.



이처럼 사회 병리현상에 따른 범죄는 항상 일본이 앞섰다. 우리보다 산업화가 빨랐고, 극도의 개인주의 성향도 먼저 생겨나 비슷한 범죄도 선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 현상이 생겨났다. 즉,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의 현상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2005년 일본의 정신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가 처음 소개했던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 보자면 '폐쇄은둔족'(閉鎖隱遁族)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이들을 지칭한다.

극심한 경쟁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외톨이를 만들어 낸다. 치열한 경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사이버세계에 탐닉해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게 된다. 결국, 사회 불만세력으로 전락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범죄가 잇따르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1등 지상주의'와 '승자 독식'의 희생자인 히키코모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묻지마 범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각·청각에 안좋은 스마트폰 청소년 사용 자제시켜야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류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걸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들 스마트폰 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서 쓰다 보면 자칫 눈이나 귀에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책도 많이 읽고 동영상도 보고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도 듣는 등 그야말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글자 크기가 작고 움직이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피로가 오게 된다.

한 전문기관이 실제 풍경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눈의 동공 크기를 비교해서 보여준걸 봤더니 풍경을 볼 때에는 정상 크기였던 동공이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 속 근육이 힘을 주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흔들리는 물체를 오래 보게 되면 눈동자가 스마트폰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눈의 기능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 번에 20분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한번 붙잡고 음악이든 동영상이든, 혹은 인터넷 검색을 하게되면 30분은 기본이고 한두 시간 거뜬히 넘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음악을 오래 듣는 것도 우리 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강장 소음은 최고 89dB 정도인데 이는 일반적인 대화 소리인 60dB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볼륨을 크게 해놓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소음성 난청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소음성 난청이란 어느 정도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청력에 저하가 오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청력저하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와 성장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심 두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주는 게 좋을듯하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